

재물보와 물보의 이두

고 정 의*

1. 머리말

근래 차자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두와 구결에 대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정리 및 활발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종래 이두에 대한 논의 중 이두의 독법은 이문, 이문대사, 내려이두, 유서필지 등 10여종의 이두학습서에 기댄 것이었다. 이두는 19세기말까지 관청이나 민간의 문서에 널리 사용되었고, 문서 출납을 맡은 서리는 이두 학습이 필수적이었으므로 이두학습서류는 상당하였을 것이나 현전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많지 않으며, 이들에 수록된 이두 항목은 문헌에 따라 적게는 80여개(어록변증설), 많게는 300여개(유서필지)에 불과하다.¹⁾ 이 양은 실제로 문헌에 사용된 이두의 양과 비교하면 극히 적은 양에 지나지 않는다. 일례로 어록변

*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물론 이두가 제일 많이 수집·정리된 것은 1,700여개가 실려 있는 이두집성이지만, 이는 1937년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엮은 것이므로 논외로 하였다. 그 밖의 문헌들에는 대체로 150여개 내외의 이두가 실려 있다.

증설의 이두방언에는 81개 항목의 이두가 실려 있으나 그 중 3개가 중복되므로 실제로는 78개의 이두가 실려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두의 수록량이 적은 문헌 자료라도 이를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까닭에 대체로 이왕의 이두학습서와 다른 새로운 독법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재물보와 물보는 그에 실린 37개와 141개의 이두만으로도 그 자료적 가치와 아울러 문헌적 면에서 소개·정리될 만한 것이다. 더욱 여기에는 다른 문헌에는 실려 있지 않은 이두도 몇 개 보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개 및 논의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본고는 이들 자료를 소개하고, 그 중 몇 개를 가려 이들의 독법과 다른 문헌의 것을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²⁾

2. 재물보의 이두와 특징

2.1. 재물보와 이두

재물보는 정조 22년(1798) 李晩永(成之)가 엮은 일종의 어휘집으로 삼재와 만물의 옛이름 및 별칭·한자명·속명·우리나라의 역대 문물제도·지리 등을 분류하고 이에 각주를 달고 때로는 한글로 풀이한 책이다.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도서, 장서각도서 등에 이본이 있다.³⁾ 이 중 규장각본은 편자·연대 미상의 필사본으로 서명이 ‘萬物草’다. 이 책은 춘·

2) 물보의 ‘我東吏讀’를 집한 것은 홍윤표교수의 자료 소개 및 제공에 따른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사의를 표한다.

3) 이하 이를 국립중앙도서관본, 규장각본, 장서각본이라 칭한다. 이외에 고려대학교 도서관등에 이본이 있다 (김근수 1980).

하·추·동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둘째 권 54면⁴⁾의 ‘里讀’⁵⁾ 항에 37개의 이두가 실려 있다. 이 이두는 장서각본에도 똑같이 실려 있으나, 그 중 일부는 독음에 차이를 보인다.⁶⁾ 그런데 이들과 달리 국립중앙도서관본에는 ‘吏讀’란 항만 있을 뿐, 실제로 이두는 하나도 정리·수록된 것이 없다. 재물보 중 이두가 실린 것은 위의 두 책이다.⁷⁾

재물보의 이두는 다른 이두학습서들에서와 같이 1자류부터 6자류로 분류·수록되어 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은 필자).

同(오인) 不諭(아닌지. *안닌지) 除良(더러) 並只(다모기) 並以(아오로) ——(냏냏치) 良中(아의) 更良(가시여. *다시여) 敎是(이시) 是乎矣(이웃의) 是白齊(이올져) 是在果(이견과) 瓮不諭(뿐아닌지) 是白遣(이올고) 爲有旃(ᄃᆞᆫ이시며) 爲等如(허들어) 白侏音(슌다짐) 爲白遣(ᄃᆞᆫ옴) 此良中(츠여의) 是去乙(이거늘) 爲白乎旃(ᄃᆞᆫ옴며) 是白乎旃(이옴오여) 是白有亦(이옴이신이며) 爲白良結(ᄃᆞᆫ옴으) 敎味白齊(이산마슌져) 是白多可(이옴다가) 是白等尼(이옴드이) 爲良如敎(ᄃᆞᆫ아라이션) 爲有如乎(ᄃᆞᆫ잇다운) 爲臥乎旃(ᄃᆞᆫ누은바) 是白去乃(이옴거나) 是白乎所(이옴은바) 是乎等以(이온들노) 爲白有在果(ᄃᆞᆫ옴이견과) 爲白有在如中(하옴이견다의) 敎是臥乎在亦(이시누은건이며) 是置有亦(이두이신이며)

4) 원래 張次 표시가 없으나 면수로는 54면에 해당됨.

5) 일반적인 명칭 ‘吏讀’와 달리 萬物草에서는 ‘里讀’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협주에 ‘薛聰始製里讀凡公文用之參以方言音讀以達語勢者’라 부기되어 있다. 이것은 규장각본과 장서각본이 동일하다. 그러나 국립도서관본은 협주는 똑같으나 ‘吏讀’로 표기되어 있다.

6) 두 이본의 차이는 아래 제시된 목록을 참고할 것. 독음 중 *은 장서각본의 것이고, 두 책의 독음이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음.

7) 그러므로 재물보의 이두라 하면 국립중앙도서관본에 실린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필자가 확인·대조한 것은 이들 세 이본이다. 고대도서관본은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소개 여부가 불명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를 만물초의 이두라 하는 것이 좋을 듯하나 재물보의 이두로 부르기로 한다.

2.2. 재물보 이두의 독법과 특징

재물보의 이두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37 개이다. 이 중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물보에만 실려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문헌과 그 독음이 다른 것도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재물보 이두의 독음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更良 : 가식여

‘更良’은 ‘다시’의 중세국어 ‘가식야/여’에 대응한다. 문헌에 따라 ‘가녀’(典律), ‘가식야’(儒必, 吏樵, 吏便), ‘가식야’(羅麗, 儒必, 吏文), ‘가식야’(吏文, 吏師), ‘깡세야’(集成) ‘깡새야’(朝鮮), ‘다시’(吏方) ‘다시인’(語錄) 등으로 읽고 있는데 재물보에서는 ‘가식여’(규장각본), ‘다식여’(장서각본)고 읽고 있다.

(2) 教味白齊 : 이산마습져

‘教味白齊’는 ‘하신 뜻을 사린다’를 뜻한다. ‘이산맛삼제’(朝鮮), ‘이산맛삼제’(集成), ‘이산맛습져’(儒必), ‘이산습제’(儒必), ‘이산맛습져’(儒必, 吏師, 吏樵, 吏便), ‘이산맛습제’(語錄, 典律)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산맛습져’가 전통적인 것이다. 재물보는 이를 ‘이산마습져’로 읽어 ‘味の’를 ‘마’로 읽고 있는데 이는 ‘맛’의 탈획형이다. 이러한 독음은 이 외에 ‘爲乎味하온마’(儒必, 朝鮮, 集成), ‘호온마’(吏便)에서 하나 더 볼 수 있을 뿐이다.⁸⁾

8) 이 외에 다음 예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는 ‘맛’으로 훈독되고 있다.
爲乎味了乎等用良 하온맛맛치온들쓰야(集成)

(3) 同 : 오인

‘同’은 ‘같은’의 뜻이다. 문헌에 따라 ‘오언’(吏方), ‘오인’(吏讀)⁹⁾, ‘오힌’(儒必, 吏襍, 吏便, 朝鮮, 集成), ‘윈’(語錄) 등으로 나타난다. 천자문의 독음 ‘오힌 동’¹⁰⁾으로 보아 ‘오힌’이 정통적인 것이다. 재물보의 ‘오인’은 ‘오힌’의 ‘ㅎ’탈락형이다. ‘오언’(吏方)은 ‘오인’의 잘못이다.

(4) 白倂音 : 숲다짐

‘白倂音’은 ‘자백을 승인하여 조서에 날인하는 것’ 또는 ‘자백을 승인하는 조서’를 뜻하는데, 재물보에서는 ‘숲다짐’, 어록해에서는 ‘술다짐’으로 두 문헌에만 나타나고 있다. ‘숲다짐’은 ‘숲다딤’의 구개음화형으로 ‘白’과 ‘倂音’의 독법으로 보아 전통적 독법을 보여준다.¹¹⁾

(5) 並只 : 다모기

‘並只’는 ‘모두, 함께, 아울러’의 중세국어 ‘다뭇, 다므기’에 대응한다. 이 문과 이문대사에서는 ‘다므기’, 그 외에서는 ‘다모기’(語錄) 또는 ‘다무기’로 순음화하거나 ‘아울우지’(吏方)와 같이 달리 읽고 있다.¹²⁾

9) 이것은 이조어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吏讀」는 작자와 연대 미상의 이두집이다.(유창돈 1964)

10) 同 오힌동(황주판천자문·석봉천자문 16a)

11) ‘白倂音’에서 ‘音’이 생략된 것으로 보이는 이두로 ‘白倂’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읽히고 있다.

白倂 숲다짐(朝鮮, 集成) 숲다(語錄) 숲다(典律) 숲디(吏便) 쓸다(羅麗)

12) ‘並只’는 다음과 같이 ‘并只’ 또는 ‘並只’로 달리 표기되기도 하였다.

並只 다므기(吏文, 吏師) 다모기(語錄) 아울우지(吏方)

并只 다모기(羅麗, 儒必, 吏襍, 吏便, 典律) 다무기(儒必, 集成)

並只 다무기(朝鮮, 集成)

(6) 是白多可 : 이웁다가

‘是白多可’는 ‘이웁다가’의 뜻이다. 어미 ‘-다가’는 흔히 ‘如可’로 표기되는데 물보에서는 ‘多可’로 표기되었다.¹³⁾ ‘是白多可’는 물보에서만 나타난다. 다른 문헌에서는 ‘是白如可’로 표기되고 ‘아웁다가’(吏便), ‘이웁다가’(朝鮮, 集成)로 읽히고 있다.

(7) 是白有亦 : 이웁이신이여

‘是白有亦’는 ‘이엿사오나, 이엿사오므로’의 뜻이다. 문헌에 따라 ‘이웁이신이여’(朝鮮, 集成), ‘이웁이시니여’(吏師), ‘이웁이심여’(吏便), ‘이웁인신이여이여’(儒必)등으로 읽고 있다. 다른 이두서에서는 ‘白’을 ‘샬’ 또는 ‘슌’으로 읽고 있는데 재물보에서는 ‘이웁이신이여’에서와 같이 ‘웁’으로 읽고 있다.

(8) 是白齊 : 이올저

‘是白齊’는 ‘이십니다’의 뜻이다. 문헌에 따라 ‘이삼계’(朝鮮), ‘이삼계’(集成), ‘이웁저’(儒必, 吏樸), ‘이웁계’(語錄) 등으로 읽고 있는데, 재물보에서는 ‘이올저’로 읽고 있다. 이 독음은 재물보에만 보이는데 ‘白’이 ‘올’로 읽힌 다른 예로는 ‘是白遣 이올고’ 하나가 더 있다.¹⁴⁾

13) 그 외에 다음과 같이 ‘加可’, ‘多加’, ‘如加’의 예도 보인다. 그러나 ‘多可’의 예는 이 외에 이두집성의 ‘爲多可(하다가)’가 유일한 것이다.

是加可 이다가(語錄), 爲加可 ㅎ다가(語錄), 爲多加 하다가(集成), 爲如加 하다가(集成), 爲多可 하다가(集成)

14) ‘白’이 ‘올’로 읽힌 대표적 예는 나려이두다. 선어말어미 ‘白’은 거의 ‘올’로 읽혔기 때문이다. 그 외에 유서필지, 진을통보, 물보 등에도 한두 예가 보인다(나려이두의 예는 몇 개만 제시하였음).

望良白去乎 비라올거은(儒必), 望白良亦 바라올아금(儒必), 使內白如乎 바리올다

(9) 是白乎旆 : 이웁오여

‘是白乎旆’는 ‘이시오며’의 뜻이다. 문헌에 따라 ‘이삼오며’(朝鮮, 集成), ‘이웁오며’(儒必, 吏便, 典律), ‘이웁오며’(吏文)로 읽고 있는데 재물보에서는 ‘이웁오며’로 ‘白’을 ‘웁’으로 읽고 있다. 재물보에서는 ‘白’은 ‘是白去乃(이웁거나), 是白多可(이웁다가), 是白等尼(이웁드이), 是白有亦(이웁이신 이여) 등¹⁵⁾에서와 같이 대체로 ‘웁’으로 읽혔다. 다른 문헌에서 ‘白’을 ‘웁’으로 읽은 예는 이두편람의 ‘望良去乎’(바라웁거은)과 ‘望白良尔’(바라웁아 금)의 두 예가 있을 뿐이다.

(10) 是乎矣 : 이웁의

‘是乎矣’는 ‘이되’의 뜻이다. 문헌에 따라 ‘이오되’(語錄, 儒必, 吏便, 朝鮮, 集成), ‘이오되’(吏襍)로 읽고 있는데, 물보에서는 ‘이웁의’로 ‘乎’를 ‘웁’, ‘矣’는 ‘의’로 읽고 있다. 이와 같이 ‘矣’가 어미로 차용된 경우 ‘矣’는 ‘-더’ 또는 ‘-되’로 읽혔을 뿐, ‘의’로 음독된 예가 없다. ‘矣’가 ‘의’로 음독된 것은 ‘其矣, 等矣, 汝矣, 吾矣, 矣身, 自矣, 前矣, 他矣’ 등과 같이 체언에 통합되었을 때다.¹⁶⁾ 그러므로 이 독음은 오기로 보인다.

(11) 爲良如教 : ㅎ아라이션

은(儒必), 望良白去乎 ㅎ라올거은(典律), 爲白乙所 ㅎ올바(物譜), 是白去乎 이올 거은(羅麗), 爲白去乙 ㅎ올기늘(羅麗), 爲白去乎 ㅎ올거은(羅麗), 爲白遣 ㅎ올고(羅麗).

15) 이 외에 다음 예가 더 있다.

是白乎旆(이웁오며), 是白乎所(이웁은바), 爲白遣(ㅎ올고), 爲白良結(ㅎ올으), 爲白有在果(ㅎ올이견과), 爲白有在如中(하웁이견다의), 爲白乎旆(ㅎ올오며).

16) 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其矣 그의(朝鮮, 集成), 其矣身 그의몸(集成), 汝矣 너의(吏便, 集成), 吾矣 내의(集成), 前矣 전의(吏襍, 集成), 他矣 남의(物譜, 語錄, 儒必).

‘爲良如教’은 ‘하여라 하신’의 뜻이다. 문헌에 따라 ‘하아라이사’(羅麗), ‘하야다이산’(朝鮮, 集成), ‘하아산이산’(吏便), ‘하야라이산’(吏讀, 典律), ‘하여라’(語錄) 등으로 읽고 있는데 물보에서는 ‘하야라이션’으로 읽어 ‘教’가 ‘션’으로 읽히고 있다. 이와 같이 ‘教’가 ‘션’으로 읽힌 예는 다른 문헌에도 보인다. ‘教 이션’(羅麗), ‘教味白侏是白臥乎在亦 이션맛숯다짐이숯누온이여’(吏便), ‘教是事 이션일’(儒必), ‘爲白如教 하야라다이션’(儒必).

(12) 爲白良結 : ㅎ웁으

‘爲白良結’은 ‘하웁고져’의 뜻이다. 문헌에 따라 ‘하삼아저’ (朝鮮, 集成), ‘하웁아저’(儒必, 吏師, 吏便), ‘하웁이제’(語錄), ‘하웁하제’(典律), ‘하올아자’(羅麗), ‘하웁아저’(吏文) 등으로 읽고 있다. 재물보의 ‘하웁으’는 ‘結’의 독음이 누락된 것이다.

(13) 爲臥乎所 : ㅎ누은바

재물보의 ‘爲臥乎所’(ㅎ누은바)는 독음 ‘하누은바’로 보아 ‘爲臥乎所’의 오기이거나 독음 ‘하누오며’의 잘못이다. ‘爲臥乎所’의 ‘乎’는 ‘하누은바’(朝鮮, 集成), ‘하누은바’(吏襍, 吏便, 典律)와 같이 ‘은’으로 읽히므로 재물보의 ‘하누은바’의 ‘은’도 오기로 보인다.

(14) —— : 낫낫치

‘——’은 ‘날날이’에 대응하는 이두인데 오직 재물보에서만 보인다. 이로써 ‘—’이 ‘일일히’와 같이 ‘일’로 음독되지 않고 ‘낫’으로 훈독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 此良中 : 초여의

‘此良中’은 중세국어의 ‘이에’에 대응하는데, 재물보와 이두집성에서 ‘츠여의’, ‘차여의’로 모두 ‘此’를 음독하고 있다. 그러나 ‘此樣以 이양으로’(集成), ‘此亦 이여’(吏便), ‘此亦中 이여해(朝鮮, 集成), 츠여희(羅麗)’에서는 ‘이’로 훈독하거나 ‘츠’로 음독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물보 이두의 특징으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재물보 이두 중에는 다른 문헌에는 실려 있지 않고 오직 물보에만 보이는 ‘一一’(낫낫치)가 있다. 그리고 ‘爲臥乎旆’도 올바른 표기라면 다른 문헌에서 볼 수 없는 예다.¹⁷⁾ 둘째로 차자 ‘白’은 ‘白倻音’(숯다짐)과 ‘敎味白齊’(이산마숯저)’ 등에서는 ‘숯’으로 기원적 독법을 보여 주나 선어 말어미인 경우에는 ‘是白齊’(이올제)’에서 ‘올’로 읽힌 것 외에는 ‘是白等尼’(이옴드이), ‘爲白遭’(호옴고) 등과 같이 모두 ‘옴’으로 읽히고 있다. 그리고 ‘是白多可’(이옴다가)와 같이 어미 ‘-다가’의 차자로 ‘如可’대신 ‘多可’가 쓰이고 있다.

3. 물보의 이두 및 특징

3.1. 물보와 我東吏讀

물보는 이익의 종손인 李嘉煥과 그의 아들 載威에 의해 순조 2년(1802)에 편찬한 어휘집이다. 이 책은 1권 1책, 사본¹⁸⁾으로 상·하 두 편 8부 49

17) 재물보 이익의 문헌 중 ‘臥乎旆’의 용례는 다음 한 예가 보일 뿐이다.
爲白臥乎旆 하삼누오며 (集成)

목에 한자어 물명을 한글로 기록하였다.¹⁹⁾ 물보의 이본으로는 한글학회 소장의 목판본 1책이 있는데 바로 이 책의 끝(하 37a-39b)에 실린 ‘我東吏讀’ 항에 141개의 이두가 수록되어 있다. 이 양은 다른 문헌에 비하여 적지 않은 편이고 그 중에는 다른 문헌에는 실려 있지 않거나 독음에 차이를 보이는 것들도 보인다. 그러나 이들도 채물보의 이두와 같이 소개·검토된 바 없다. 이에 그 목록을 제시하고 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물보의 이두도 다음과 같이 1자류로부터 7자류로 분류·수록되어 있다 (가나다 순은 필자).

節(지위) 加于(더옥이) 件記(벌기) 更良(가시여) 侔音(다짐) 戈只(과글이) 敎事(이산일) 敎是(이시) 敎矣(이사디) 及良(밋쳐) 岐如(가로여) 段置(단두) 導良(드되여) 無亦(어로오견이여) 茂火(더부러) 白等(숭든) 白是(살이) 別乎(벼름) 并囚(값슈) 並以(아오로) 並只(다모기) 卜役(진役) 卜定(지정) 捧上(받자) 不冬(앗들) 不得(모지) 舍音(말음) 先可(아직) 是如(이다) 始叱(비록) 新反(샤로이) 役如(격기) 易亦(아나하) 右良(이무여) 尤于(더옥) 爲乎(흐온) 有如(이시니여) 唯只(오직) 乙良(올낭) 擬只(시기) 仍于(지즈로) 作文(질른) 這這(갓갓) 適音(마침) 的只(마기) 專亦(질혀) 除良(더러) 題音(제김) 粗也(아야라) 進賜(나으리) 進叱(낫드리) 尺文(자문) 初如(초혀) 最只(아지기) 追于(조초) 他矣(남의) 退伊(물니) 便亦(사러여) 向事(아안일) 向入(앗드러) 絃如(시우여) 惠伊(저즈지) 況旒(흐물며)

其等徒(저드디) 無不冬(어오로안들) 無乎事(어오른) 使內使(바리은일) 是良爾(이아곰) 良中沙(아희사) 爲去等(흐거든) 爲去乙(흐거늘) 爲等亦(흐든여) 爲良結(흐야감) 爲良置(흐야두) 爲白遣(흐삼고) 爲白等(흐살든) 爲白齊(흐삼전) 爲白齊(흐삼절) 爲白置(흐삼두) 爲是遣(흐잇고) 爲臥乎(흐누온) 爲

18) 이 책은 재위의 후손 소장본으로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인문과학 5」(1960)에 활판으로 소개되었다.

19) 물보에 대한 해설로는 이가원(1960)과 김근수(1980) 참고.

隱所(한바) 爲隱喻(흔지) 爲只爲(헝기암) 爲巴只(하도록) 爲乎旆(헝오며) 爲乎所(헝온바) 爲乎矣(헝오되) 乙用良(을쓰와) 矣身亦(의몸여) 詮次以(전차로) 除除良(더더리) 秩秩以(지질노)

敎味白齋(이삿알쌔져) 望白良糸(바라쌔아금) 物物白活(갓갓발팔) 分叱不喻(뿐아닌지) 是去向入(잇가앗드저) 是白良糸(이쌔아금) 是白有亦(이쌔이시니여) 是白乎味(이쌔온맛) 是沙餘良(이샤나마) 是置有亦(이두이시니여) 爲白去乙(헝쌔거늘) 爲白去乎(헝쌔거온) 爲白內等(하쌔넉든) 爲白良結(헝쌔아져) 爲白良糸(하쌔아금) 爲白良沙(헝쌔아샤) 爲白良喻(헝쌔아지) 爲白沙餘(헝쌔샤나마) 爲白如可(헝쌔다가) 爲白如乎(헝쌔다온) 爲白乙所(헝올바) 爲白乎旆(헝쌔오며) 爲白乎事(헝쌔온일) 爲白乎喻(헝쌔온지) 爲白乎矣(헝쌔오되) 爲有去乙(헝잇거늘) 爲乎樣以(헝온양으로) 矣徒等亦(의니등이여) 矣身耳亦(의몸짜여) 的只乎事(마가온일) 向敎是事(향교시샤)

敎是在如中(이시견다히) 望白良去乎(바라쌔거온) 使內白如乎(바라쌔다온) 是去是良糸(이거이아금) 是去有等以(이거이온들노) 爲白臥乎味(헝쌔누온맛) 爲白臥乎所(헝쌔누온바) 爲白在如中(헝쌔견다히) 爲白乎在亦(헝쌔오견이여) 爲有在而亦(헝잇견말이여) 矣身向爲良(의몸향헝여) 的只臥乎事(마기누온일)

敎是臥乎在亦(이시누온견이여) 爲白乎喻良置(헝쌔온지라두) 爲白乎第亦中(헝쌔온져여히) 岐等如使內如乎(기로러바리다온) 貌如使內良如敎(쫘다바리다이산) 爲白臥乎以用良(헝쌔누온들노빠)

3.2. 물보 이두의 독법과 특징

위와 같이 물보에는 141개의 이두가 실려 있다. 이들 중에는 다른 문헌에는 실려 있지 않고 물보에만 보이는 것도 있고, 표기나 독음이 다른 문헌과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물보의 이두를 살펴보기

로 한다.

(1) 加于 : 더욱이

‘加于’는 ‘더욱, 더욱이’의 뜻이다. 다른 문헌에서는 ‘더욱’(儒必, 典律), ‘더우여’(吏方), ‘더욱’(語錄, 吏襍, 吏便, 朝鮮, 集成), ‘더욱이’(吏師) 등으로 읽고 있는데. 물보는 이문대사와 더불어 ‘더욱’에 접미사 ‘-이’가 연결된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부사 형태는 중세국어나 근대국어 자료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2) 件記 : 벌괴

‘件記’는 물품명이나 수량을 기록한 것을 뜻한다. ‘발괴’(儒必, 集成), ‘벌괴’(吏方), ‘벌괴’(儒必), ‘불괴’(羅麗, 吏文, 吏師, 吏襍) 등으로 읽고 있다. 물보의 ‘벌괴’는 ‘벌괴’ 또는 ‘발괴’의 오기다.

(3) 侑音 : 다짐

‘侑音’은 현대어 ‘다짐’에 해당되는데, 관아에서 백성에게 다그쳐서 확실한 대답을 받거나 받은 글²⁰을 가리킨다. ‘다담’(羅麗, 吏文, 吏師, 吏便) 또는 ‘다짐’(儒必, 吏方, 典律, 集成)으로 읽히는데 물보의 ‘다짐’은 ‘다담’의 구개음화형이다.

(4) 戈只 : 과글이

‘戈只’는 ‘급히’에 해당한다. 문헌에 따라 ‘과거리’(吏襍), ‘과구니’(典律), ‘과그리’(吏便), ‘과글니’(語錄, 儒必, 朝鮮, 集成), ‘과글이’(吏師), ‘과기리’(儒必) 등으로 나타난다. 물보의 ‘과글이’는 이문대사와 함께 중세국어의

20) 所供 供卽供招 國俗所謂侑音也(吏文輯覽 22 b)

부사 ‘과글이’와 일치한다.

(5) 教味白齋 : 이삿알삿저

‘教味白齋’는 ‘이산맛삿제’(朝鮮), ‘이산맛삿제’(集成), ‘이산맛삿저’(儒必), ‘이산삿제’(儒必), ‘이산맛삿저’(儒必, 吏師, 吏襍, 吏便), ‘이신맛삿제’(語錄, 典律) 등으로 읽히고 있는데 물보에서는 ‘이삿알삿저’로 읽고 있다. ‘이삿’과 ‘알’은 ‘教’와 ‘味’의 독법으로 보아 ‘이산맛’의 오기다. 물보에서 ‘白’은 ‘삿’ 또는 ‘삿’으로 혼기되고 있다.

(6) 教事 : 이산얼

‘教事’는 ‘하신 일’을 뜻한다. ‘이산일’(儒必, 典律, 集成), ‘이산’(羅麗), ‘이산스’(吏文, 吏師), ‘이산일’(吏方, 吏師, 吏襍), ‘이신스’(語錄) 등으로 읽혔는데 ‘事’는 ‘일’의 훈독자이므로 ‘이산얼’은 ‘이산일’의 오기다. 문헌에 따라 ‘이산스’(吏文, 吏師), ‘이신스’(語錄)와 같이 ‘스’로 음독되기도 하였다.

(7) 及良 : 미쳐

‘及良’은 ‘미쳐’의 뜻이다. 문헌에 따라 ‘미쳐’(吏師, 吏襍), ‘미쳐’(羅麗), ‘미아’(吏便), ‘미쳐’(吏方, 朝鮮, 集成), ‘미쳐’(語錄, 儒必, 典律) 등으로 읽고 있는데 물보의 ‘미쳐’는 ‘미쳐’와 함께 ‘미쳐’의 중철표기다.

(8) 其等徒 : 저드네

‘其等徒’는 ‘저들, 그들’을 뜻하는 이두다. ‘저드내’(吏文, 吏師, 吏襍, 朝鮮), ‘저등이’(吏便), ‘저등이’(語錄, 吏讀), ‘저등이’(典律) 등으로 읽고 있는데 ‘等’과 ‘徒’는 ‘들’과 ‘내’로 훈독되므로 ‘저드내’가 중세국어에 가깝다.

물보의 ‘저드터’는 ‘저드너’의 오기다.

(9) 岐等如使內如乎 : 기로러바리다온

‘岐等如使內如乎’는 ‘분리하여 행하면 또는 하더니’의 뜻이다. 문헌에 따라 ‘가로드러바리다온’(朝鮮), ‘가로드러브리다온’(吏便), ‘가로드러바리다온’(集成), ‘가로러브리다온’(儒必), ‘가로러브리다온’(吏師, 儒必), ‘가로러브리다온’(吏襍) 등으로 읽고 있다.²¹⁾ ‘岐’는 중세국어의 ‘가르-’에 해당 되는데 이두편람과 전울통보의 ‘가로드러’, ‘가르트리’ 등과 ‘爲等如’(흐트리), ‘此等’(이트렛)의 독법으로 미루어 그 선대형은 *가르틀-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보의 ‘기로러바리다온’은 ‘가로러바리다온’의 오기다.

(10) 望白良亦 : 바라살아금

‘望白良亦’은 ‘望良白良亦’의 생략형으로 ‘바라옴건대, 바라옴기를’의 뜻이다. 문헌에 따라 ‘바라살아금’(朝鮮), ‘바라살아금’(集成), ‘바라숯아금’(吏讀), ‘바라옴아금’(語錄), ‘바라올아금’(儒必), ‘바라숯아금’(吏師), ‘바라옴아금’(吏便), ‘브리숯아금’(典律) 등으로 읽고 있다. ‘白’은 문헌에 따라 ‘숯, 살, 옴, 올, 옹’ 등으로 나타나는데 물보에서는 ‘살’으로 읽고 있다. 이러한 독법은 물보에서만 보이며, 이 외에 ‘是白有亦’(이살이시니여), ‘是白乎味’(이살은맛), ‘爲白乎在亦’(흐살오건이여) 등의 예가 있다.

(11) 無不冬 : 어오로안들

‘無不冬’은 이중부정으로 ‘없지 아니(하다)’에 해당한다. 문헌에 따라 ‘어오로일’(儒必), ‘어오론안들’(吏師), ‘업스론안들’(吏襍, 朝鮮, 集成), ‘업슬론안들’(儒必) 등으로 나타나는데, ‘無’의 용례는 이 외에 ‘無亦’과 ‘無乎

21) 이 외에 ‘岐等如’는 문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읽히고 있다.
岐等如 가로드러(吏便, 朝鮮) 가로드러(集成) 가르트리(語錄) 가르트리(典律)

事’ 등이 있다.²²⁾ 이들의 독음을 보면 ‘無’는 ‘어오-’와 ‘없-’으로 읽혀, 문중할 수는 없으나 ‘어오’는 ‘없’의 선대형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無’의 독음 ‘어오’는 이 외에 ‘無乎事’와 ‘無亦’의 일부 독음에서만 나타나고, 그 외는 모두 ‘없-’으로 읽히고 있다.²³⁾

(12) 無亦 : 어로오견이여

‘無亦’은 중세국어의 ‘업시’에 대응한다. 문헌에 따라 ‘어오론견이여’(吏師), ‘어오이여’(儒必, 集成), ‘업스로견이여’(朝鮮), ‘업스로이여’(集成), ‘업스론견이여’(吏禰), ‘업스론견이여’(儒必) 등으로 읽고 있다. 이들 독음은 동명사형 ‘어오론’, ‘업스론’과 ‘在亦’의 독음 ‘견이여’로 보아 ‘無’와 ‘亦’ 사이에 어떤 차자가 생략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보의 ‘어로오견이여’는 ‘無不冬’과 ‘無亦’의 독음 ‘어오로/론’으로 보아 ‘어오로견이여’의 오기다.

(13) 無乎事 : 어오론

‘無乎事’는 ‘없는 일’의 뜻이다. 문헌에 따라 ‘무은일’(吏便), ‘어오로일업다’(典律), ‘어오론일’(吏讀, 吏師), ‘업스은일’(儒必, 集成), ‘업스은스’(語錄), ‘업스은일’(吏禰), ‘ᄃ시은일’(儒必) 등으로 읽고 있다. 이 중 ‘무은일’(吏便)

22) 차자 ‘無’는 독음에 따라 ‘어오-’계와 ‘없-’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어오-’계는 ‘無乎事’와 ‘無亦’의 일부 독음에만 나타난다. 그 외는 모두 ‘없-’으로 읽고 있다.

無乎事 어오로일업다(典律), 어오론(物譜), 어오론일(吏讀), 어오론일(吏師).

無亦 어로오견이여(物譜), 어오론견이여(吏師), 어오이여(儒必, 集成).

23) ‘無不冬, 無亦, 無乎事’ 외의 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無去等 업거든(集成), 無去有等以 업거이신들로(朝鮮, 集成), 無去乙 업거늘(集成), 無在 업건(集成), 無在事乙 업건일음(集成), 無在乙 업건늘(集成), 無在乙良 업건을안(集成), 無叱昆 업근(集成), 無乎故 업스은고로(集成), 無乎味 업스은맛(集成), 업스은맛(語錄).

은 ‘無’를 음독한 유일한 예로 용자법에 어긋난 것이고, ‘하시온일’(儒必)은 ‘無’의 독법에서 벗어난 예로 오기임이 분명하다. 물보의 ‘어오른’은 필사 중 ‘事’의 독음 ‘일’이 누락된 것이다.

(14) 白是 : 샅이

‘白是’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올리는 글을 뜻하는 이두다. ‘샅이’(朝鮮, 集成), ‘술이’(吏師), ‘숯이’(儒必) 등으로 나타나는데, 물보에서는 ‘샅이’로 ‘샷’(白)과 같이 중모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15) 卜役 : 진역

‘卜役’은 ‘백성이 지는 부역, 병역 등의 공역’을 뜻한다. 문헌에 따라 ‘딘역’(儒必, 吏便, 典律, 集成), ‘지역’(吏文), ‘진역’(吏師, 吏禰), ‘진익’(儒必) 등으로 읽고 있다. 물보의 ‘진役’은 ‘진역’의 오기이다.

(16). 捧上 : 밧자

‘捧上’은 관청에 물품을 바친다는 뜻이다. ‘捧’은 훈 ‘받들-²⁴⁾과 ‘上’의 독음 ‘자’²⁵⁾로 미루어 ‘받자’(吏師), ‘밧자’(儒必, 吏文, 吏方, 吏禰, 朝鮮, 集成), ‘밧즈’(語錄, 典律) 중 ‘받자’가 전통적인 것이다. 물보에서는 ‘밧자’로 읽고 있는데 독음 ‘자’는 다른 문헌에서는 ‘자’ 또는 ‘즈’로 나타나고 ‘자’와 같이 이중모음으로 읽힌 예는 보이지 않는다.²⁶⁾

(17). 不得 : 모지

24) 捧 받들 봉(字會 하 10a) 받즈을 봉(類合 하 36b)

25) ‘上 자 邐上 捧上 外上 皆曰자’(古今釋林 羅麗吏讀)

26) ‘上’이 ‘자, 즈’ 또는 ‘츠, 차’로 읽힌 예로는 다음이 있다.

上 자(羅麗, 集成), 外上 외자(吏禰), 紙上 지동즈(儒必), 紙筒上 지동자(吏禰), 上下 차하(羅麗, 朝鮮, 集成) 츠이(儒必) 츠하(吏方).

‘不得’은 중세국어의 ‘못’에 대응하며 ‘못, 하지못 하다’의 뜻이다. 문헌에 따라 ‘모딜’(吏便), ‘모질’(語錄, 儒必, 吏文, 吏師, 吏禱), ‘못질’(朝鮮, 集成), ‘므딜’(典律) 등으로 읽고 있다. 물보의 ‘모지’는 ‘모질’의 탈획형이다.

(18) 使內白如乎 : 바라삼다운

‘使內白如乎’은 ‘행하옵던, 행하옵더니’의 뜻이다. 문헌에 따라 ‘바라삼다운’(朝鮮, 集成), ‘바리올다운’(儒必), ‘부리삼다운’(典律), ‘브리삼다운’(吏禱), ‘브라삼다운’(吏便), ‘브리삼다운’(語錄, 吏師) 등으로 읽고 있다. 물보의 ‘바라’는 다음의 ‘使內使’의 독음 ‘바리’로 보아 ‘바리’의 오기다.

(19) 使內使 : 바리온일

‘使內使’는 독음 ‘바리온일’로 보아 ‘使內事’의 오기다. ‘使內事’는 ‘부린 일’의 뜻으로 문헌에 따라 ‘부리온일’(典律), ‘부리올일’(吏讀), ‘브라운일’(吏便), ‘브리온일’(語錄, 吏師) 등으로 읽고 있다. ‘使’를 ‘바리’로 읽은 것은 물보에서만 보인다.

(20) 是去有等以 : 이거이온들노

‘是去有等以’는 ‘인 것 때문에’의 뜻이다. 문헌에 따라 ‘이거이시들로’(朝鮮), ‘이거이신들로’(儒必, 吏禱, 集成), ‘이거이온들로’(吏師) 등으로 읽고 있다. ‘有’의 독법으로 보아 물보의 독음 ‘이거이온들노’의 ‘-온’은 이문대사와 함께 ‘신’의 잘못이다.

(21). 是沙餘良 : 이사나마

‘是沙餘良’는 ‘이어도’의 뜻이다. 문헌에 따라 ‘아스나마’(語錄), ‘이사남아’(吏禱, 吏便, 朝鮮, 集成), ‘이사아마’(儒必), ‘이산나마’(羅麗, 吏文, 吏師),

‘이스남아’(儒必, 典律) 등으로 읽고 있다. 차차 ‘沙’는 다른 문헌들에서는 ‘사’ 또는 ‘스’로 읽고 있는데 물보에서는 전부 ‘샤’로 읽고 있다.²⁷⁾

(22) 始叱 : 비룩

‘始叱’은 ‘비룩하여, 시작하여’의 뜻으로 중세국어의 ‘(로)브터, (로)셔’에 해당된다. 문헌에 따라 ‘바라’(朝鮮, 集成), ‘비라’(儒必), ‘비랏’(吏讀, 典律), ‘비룻’(儒必, 吏禱), ‘비룬’(吏文), ‘비룰’(羅麗), ‘비룻’(語錄, 吏師, 吏便) 등으로 읽고 있는데 물보에서는 ‘비록’으로 표기되어 있다. ‘비룻’의 오기다.

(23) 新反 : 샤로이

‘新反’은 ‘새로’의 뜻이다. 문헌에 따라 ‘새로이’(吏師, 吏禱, 吏便, 集成), ‘시로니’(典律), ‘시로러’(吏方), ‘시로이’(語錄, 儒必), ‘시로히’(羅麗) 등으로 읽고 있다. 물보에서는 ‘샤로이’로 다른 문헌들의 독음과 차이를 보인다.

(24) 役如 : 격기

‘役如’는 독음으로 보아 ‘役只’와 같은 것이다. ‘役只’는 ‘음식 등을 차리어 남을 대접하거나 옆에서 도와주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겨기’(典律), ‘격기’(羅麗, 儒必, 吏師, 吏禱, 吏便, 集成), ‘것기’(吏文), ‘오직’(羅麗), ‘적이’(語錄), ‘적지’(吏方) 등으로 읽히고 있다. ‘役如’는 물보 외의 다른 문헌에는 보이지 않고 조선초기의 이두 자료에서도 쓰인 예가 보이지 않는다.²⁸⁾

27) 물보에서 ‘沙’가 ‘샤’로 읽힌 것으로는 다음 예가 더 있다.

良中沙(아회사) 爲白良沙(호삼아샤) 爲白餘沙(호삼샤나마)

28) 조선 초기의 이두자료에 대하여는 오창명(1965), 박성중(1996)을 참조할 것.

(25) 爲等亦 : ㅎ든어

‘爲等亦’은 물보에만 실려 있는 유일형이다. ‘亦’은 ‘初亦’과 ‘初如’에서와 같이 ‘如’와 대체되기도 하였으므로 ‘爲等亦’은 ‘爲等如’와 같은 것이다. ‘爲等如’는 ‘하트다’(朝鮮, 集成), ‘허들어’(才物), 허트리(羅麗, 儒必, 吏禰), ㅎ드려(語錄), ㅎ르려(吏便), ㅎ트려(吏文, 吏師) 등으로 읽히는데 이 중 ‘ㅎ트리’가 가장 전통적인 것이다.

(26) 爲良結 : ㅎ야감

‘爲良結’은 ‘하고자, 하계꿈’의 의미다. 문헌에 따라 ‘하올아져’(朝鮮, 集成), ‘ㅎ아져’(吏便), ‘ㅎ야감’(吏師, 吏禰), ‘ㅎ올아져’(儒必) 등으로 읽고 있는데, 물보에서는 이문대사, 이문잡례와 같이 ‘ㅎ야감’으로 읽어 ‘結’을 ‘감’으로 읽고 있다. 이와 같이 ‘結’자를 ‘감’으로 읽은 것은 이들이 유일하고 그 외는 ‘저’, ‘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⁹⁾ 물보도 ‘爲白良結’에서는 ‘ㅎ살아져’와 같이 ‘저’로 읽고 있다.

(27) 爲白等 : ㅎ살든

‘爲白等’은 ‘하옴기는’의 뜻이다. 문헌에 따라 ‘하살든’(朝鮮, 集成), ‘ㅎ숯든’(吏師, 吏便), ‘ㅎ숯등’(儒必), ‘ㅎ옴든’(吏文) 등으로 읽고 있는데, 물보에서는 ‘하살든’으로 읽어 ‘白’을 ‘살’로 읽고 있다. 이와 같이 ‘白’을 ‘살’로 읽은 예는 다른 문헌에서도 상당수 나타나는데 몇 예를 보면 ‘敎味白如 이산맛살다’(羅麗), ‘白等 살등’(儒必), ‘白活 살궐’(吏便), ‘使內白如乎 부리살다온’(典律), ‘是白良置 이살라두’(羅麗) 등과 같다.

29) 이 외에 ‘되’로 읽힌 예가 있으나 이는 표기의 잘못으로 보인다.

爲白良結望良白去乎 ㅎ올아되바라올거은(羅麗)

(28) 爲白良結 : ㅎㅅㅅㅅㅅ

‘爲白良結’은 ‘하옵고져’의 뜻이다. 문헌에 따라 ‘하ㅅㅅㅅㅅ’(朝鮮, 集成), ‘ㅎㅅㅅㅅㅅ’(儒必, 吏師, 吏便), ‘ㅎㅅㅅㅅㅅ’(語錄), ‘ㅎㅅㅅㅅㅅ’(典律), ‘ㅎㅅㅅㅅㅅ’(羅麗), ‘ㅎㅅㅅㅅㅅ’(吏文) 등으로 읽고 있다. 물보도 ‘ㅎㅅㅅㅅㅅ’로 읽어 위(26번)의 ‘爲良結’에서와 달리 ‘結’을 ‘저’로 읽고 있다.

(29) 爲白沙餘 : ㅎㅅㅅㅅㅅㅅㅅㅅㅅ

‘爲白沙餘’는 ‘하옵 뿐 아니라’의 뜻이다. 이 이두는 이문대사에도 똑같이 실려 있는데 ‘ㅎㅅㅅㅅㅅㅅㅅ’로 읽고 있다. 이와 같이 ‘爲白沙餘’는 이두 두 문헌에만 나타난다. 이 외의 문헌에서는 ‘良’이 첨기된 ‘爲白沙餘良’으로 나타나고 ‘하ㅅㅅㅅㅅㅅㅅㅅㅅ’(朝鮮, 集成), ‘ㅎㅅㅅㅅㅅㅅㅅㅅㅅ’(吏便), ‘ㅎㅅㅅㅅㅅㅅㅅㅅㅅ’(儒必), ‘ㅎㅅㅅㅅㅅㅅㅅㅅㅅ’(羅麗), ‘ㅎㅅㅅㅅㅅㅅㅅㅅㅅ’(吏文) 등으로 읽히고 있다.

(30) 爲白臥乎以用良 : ㅎㅅㅅㅅㅅㅅㅅㅅㅅ

‘爲白臥乎以用良’은 ‘하옵는 것으로써’의 뜻인데 독음으로 보아 ‘들’의 차자 ‘等’이 표기에서 누락된 것이다. 이것은 물보에서만 보이는데 같은 뜻의 이두로는 ‘爲白臥乎等以 하ㅅㅅㅅㅅㅅㅅㅅㅅ’(朝鮮, 集成)이 있다.

(31) 爲白乙所 : ㅎㅅㅅㅅㅅ

‘爲白乙所’는 ‘하옵 바’의 뜻이다. 이 이두는 다른 문헌에는 실려 있지 않고 물보에서만 보인다. 이 외에 ‘爲白乙+명사’의 예로는 ‘爲白乙喻 하ㅅㅅㅅㅅㅅㅅㅅㅅ’(朝鮮, 集成)를 들 수 있다. 그리고 ‘爲白等以 ㅎㅅㅅㅅㅅㅅㅅ’(吏讀), ‘爲白事 하ㅅㅅㅅㅅㅅㅅㅅㅅ’(集成), ‘爲白所置 하ㅅㅅㅅㅅㅅㅅㅅㅅ’(集成) 등으로 보아 ‘爲白所’와 같은 표기가 있을 듯하나 어느 문헌에도 보이지 않는다.

(32) 爲白齊 : ㅎ삼전 · ㅎ삼절

‘爲白齊’는 ‘하옵니다, 하옵소서’의 뜻이다. 문헌에 따라 ‘하삼제’(朝鮮), ‘하삼계’(集成), ‘하삼저’(儒必), ‘ㅎ삼저’(吏師), ‘ㅎ삼계’(語錄, 吏便, 典律), ‘ㅎ삼저’(吏文), ‘흙저’(吏文) 등으로 읽고 있다. 물보에서는 ‘ㅎ삼전 · ㅎ삼절’과 같이 ‘齊’를 ‘전’ 또는 ‘절’로 읽고 있는데 이러한 독음은 물보에만 보인다.

(33) 爲隱所 : 한바

‘爲隱所’는 ‘한 바’에 대응하는데, 물보 외에는 이문대사에 ‘爲隱所 한바’(吏師)로 실려 있다. 그 외의 문헌에서는 ‘爲所’로 나타나는데 ‘爲所, 別爲所有去等, 爲所無去沙, 爲所有去等, 爲所乙用良, 直爲所白齊, 直爲所如中’³⁰⁾등의 용례가 보인다.

(34) 有如 : 이시니여

‘有如’는 ‘인 것인데’의 뜻에 해당한다. 이 이두는 물보에만 실려 있다. 같은 뜻의 이두로 ‘有亦’이 있다. 이것은 ‘이시니여’(吏師), ‘이신이여’(儒必, 朝鮮, 集成) 등으로 읽혔는데, ‘爲白置有亦 ㅎ삼두이여’(吏便), ㅎ삼두이신니쇠(羅麗)’에서와 같이 ‘이여’, ‘이신니쇠’로 읽히기도 하였다.

(35) 矣身耳亦 : 의몸사여

30) 이들의 독음과 출전은 다음과 같다.

爲所 한바(朝鮮, 集成), 別爲所有去等 別한바잇거든(集成), 爲所無去沙 한바업거사(朝鮮, 集成), 爲所有去等 한바잇거든(集成), 爲所乙用良 한바을쓰이(集成), 直爲所白齊 직한바삼저(儒必2, 吏襟), 直爲所如中 곳한바다해(集成) 덕한바다히(吏便, 典律) 직한바다에(羅麗) 직한바다히(語錄).

‘矣身耳亦’은 ‘나만, 이몸뿐’의 뜻이다. 문헌에 따라 ‘의몸쁘려’(吏文, 吏師), ‘의몸짜녀’(儒必, 集成), ‘의몸쓰려’(吏師, 吏便)로 읽고 있다. ‘耳亦’은 중세국어의 ‘쓰, 쓰녀’에 대응되는데 ‘쁘려’(羅麗), ‘짜녀’(儒必, 儒必, 集成), ‘쌀여’(典律), ‘쓰려’(語錄, 吏襍), ‘쓰여’(吏方), ‘쓸여’(吏便) 등으로 읽고 있다. 물보의 ‘짜여’는 ‘ㄴ’이 탈락된 것이다.

(36) 擬只 : 시기

‘擬只’는 중세국어의 ‘비가’에 해당하는데 ‘비가’는 ‘의지하다’, ‘빙자하다’, ‘겨누다, 비교하다’의 뜻으로 ‘擬只’의 문맥 의미 ‘일을 맡아 처리하(게) 하다, 담당하(게) 하다’와 일치하지는 않는다(오창명 1995). 문헌에 따라 ‘擬只’는 ‘비기’(羅麗, 吏方, 吏便), ‘비기다’(吏讀), ‘비김’(語錄, 典律) 혹은 ‘시기’(羅麗, 儒必, 吏文, 吏師, 吏襍, 集成), ‘시기다’(吏讀) 등으로 읽히는데, ‘시기’로 읽힌 것은 문맥 의미가 ‘시기’(승)와 유사한 데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박희숙 1985). 물보는 이 중 ‘시기’의 독법만을 보여 준다.

(37) 作文 : 질문

‘作文’은 토지 및 호적대장 등 관청의 문서를 가리킨다. ‘지여’(吏方), ‘질문’(羅麗, 儒必, 吏文, 吏師, 典律, 集成), ‘질물’(語錄) 등으로 읽고 있다. ‘作文’은 고유어 ‘질’과 한자어 ‘文’의 복합어이므로 물보의 ‘질문’은 ‘질문’의 오기다.

(38) 的只乎事 : 마가온일

‘的只乎事’은 ‘확실한 일’의 뜻이다. ‘마기’(的只)는 ‘맞-’(的)의 파생어 ‘마지’의 역구개음화형이므로 ‘的只乎事’는 ‘마가온일’(儒必, 吏師, 集成)로 읽힌다. 물보의 ‘마가온일’은 ‘마가온일’의 오기다.

(39) 專亦 : 절허

‘專亦’는 중세국어의 ‘전허, 오로지’에 대응하는 부사다. ‘專亦’의 ‘專’은 ‘던허’(吏襍), ‘전허’(吏文, 吏師), ‘전여’(儒必, 吏便, 典律, 朝鮮, 集成), ‘전허’(羅麗, 語錄, 儒必, 吏方)와 같이 모두 음독하는 것이 특징이다. ‘專’의 독음으로 보아 물보의 ‘절허’는 ‘전허’의 오기다.

(40) 除除良 : 더더리 物譜)

‘除除良’는 ‘더러는, 얼마쯤’의 뜻이다. ‘더더리’(儒必, 吏師, 吏襍, 吏便), ‘더러라’(儒必), ‘덜어아’(朝鮮, 集成) 등으로 읽혔다. 물보의 ‘더더리’는 ‘더더리’의 탈획형이다.

(41) 尺文 : 자문

‘尺文’은 ‘관처에 납품했을 때 써주는 영수증³¹⁾을 뜻한다. ‘자문’(吏文, 吏師, 吏襍, 朝鮮), ‘갓문’(集成), ‘지문’(羅麗), ‘즈문’(儒必, 吏方) 등과 같이 ‘尺’은 혼독되었는데, 물보에서는 다른 문헌들의 ‘자’, ‘즈’와 달리 중모음 ‘자’로 나타나고 있다.

(42) 他矣 : 남의

‘他矣’는 ‘타인의’의 뜻이다. ‘他’는 ‘남의’(語錄, 儒必, 集成), ‘남의’(羅麗), ‘늬의’(吏師, 吏便), ‘더의’(羅麗), ‘저아’(典律), ‘저의’(吏方), ‘타의’(吏文, 朝鮮) 등과 같이 ‘늬’, ‘더’로 혼독하거나 ‘타의’와 같이 음독하였다. ‘더의’, ‘저의’는 이를 ‘彼’, ‘其’로 잘못 읽은 것이다(안병희 1983:56). 물보는 ‘남의’로 혼독하고 다른 독법은 보이지 않는다.

31) 今外邑人納錢穀於京司受文蹟以備憑考者 羅麗吏讀)

(43) 向教是事 : 향교시사

‘向教是事’는 ‘행하실 일’의 뜻이다. ‘아이산일’(典律, 集成), ‘아이산일’(吏便), ‘이안이시스’(語錄) 등으로 읽고 있는데 물보에서는 특이하게 ‘향교시사’로 음독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독법이라기보다 필사과정 중 당시의 독법대신 한자의 독음을 부기한 것으로 보인다.

(44) 惠伊 : 저즈지

‘惠伊’는 ‘짐작하여, 가늠하여, 헤아려, 고루’등의 뜻이다.³²⁾ 문헌에 따라 ‘지즈리’(集成), ‘저즈려’(吏方), ‘저즈리’(吏師, 吏襍, 吏便), ‘저조리’(語錄), ‘저즈리’(儒必, 集成), ‘저즈이’(吏讀), ‘저지리’(典律), ‘지즈리’(集成) 등으로 나타나는데 나려이두에서는 ‘惠伊分揀 저스리분간’과 같이 ‘저스리’로 읽었다. 물보의 ‘저즈지’는 ‘저즈리’의 오기다.

(45) 況拏 : ㅎ물머

‘況拏’는 ‘하물머’의 뜻이다. ‘하물머’(集成), ‘허물머’(吏方, 語錄), ‘ㅎ물머’(儒必), ‘ㅎ물머’(羅麗, 吏師, 吏襍, 吏便), ‘ㅎ물머’(吏文) 등으로 나타나는데, 물보의 ‘ㅎ물머’는 ‘하물머’의 순음화형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보에 실린 이두에서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役如, 爲等亦, 爲白臥乎以用良, 爲白乙所’ 등이다. 다른 문헌에서는 볼 수 없는 예들이기 때문이다. 이 중 ‘役如, 爲等亦’는 독음으로 보아 ‘役只, 爲等如’와 같은 것이고, ‘爲白臥乎以用良’와 ‘爲白乙所’는 ‘爲臥乎以用良’와 ‘爲乎乙所’에 겸양법선어말어미 ‘白’이 통합된 것이다. 다음은 동

32) ‘惠伊’의 의미와 용례는 오창명(1995)와 박성중(1996)을 참조할 것.

된 바 없다. 적이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물보와 물보의 이두에 서는 몇 가지 지적될 만한 사실이 드러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물보와 물보에는 다른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 몇 개의 이두가 실려 있다. ‘一一(낫낫치)’<才物>와 ‘役如(격기), 爲等亦(ㅎ든여), 爲白臥乎以用良(ㅎ샅누은들노빠), 爲白乙所(ㅎ올바)’<物譜> 등이다.

차자 ‘白’은 재물보에서는 선어말어미로 쓰인 경우 ‘是白齊’(이올제)’ 외에는 모두 ‘是白等尼“(이)올드이), ‘爲白遣’(ㅎ올고) 등과 같이 ‘ 올’으로 읽히고 있다. 그러나 재물보에서는 대체로 ‘爲白遣’(ㅎ샅고), ‘爲白齊’(ㅎ샅전) 등과 같이 ‘샅’으로 읽혔으나 ‘爲白等’(ㅎ살든), ‘望白良ホ’(바라샅아금), ‘是白乎味’(이샅은맛), ‘爲白乎在亦’(ㅎ샅오견이여) 등과 같이 ‘살’ 또는 ‘샅’으로 혼란되고 있다.

재물보에는 어미 ‘-다가’의 차자로 ‘是白多可’(이올다가)’와 같이 ‘如可’ 대신 ‘多可’가 쓰인 예가 보인다. 한편 물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차자가 달리 읽히기도 하였다. ‘爲白齊’(ㅎ샅전/ㅎ샅절), ‘爲良結’(ㅎ야감), ‘爲白良結’(ㅎ샅아저), ‘望白良ホ’(바라샅아금). ‘是去是良ホ’(이거이아금), ‘是良爾’(이아금) 등. 그리고 일부 이두에서 단모음 대신 중모음으로 표기된 예가 보인다. ‘捧上’(받자), ‘尺文’(자문), ‘初如’(초허), ‘追于’(쪄쪄), ‘是沙餘良’(이샤나마) 등이 그 예다. 특이한 예로 ‘向教是事’(향교시사)와 같이 모 든 차자를 음독한 것이 있는데 표기상의 잘못임이 분명하다.

재물보와 물보의 이두 중에는 분명한 탈자나 오자가 보인다. 재물보의 ‘爲白良結’(ㅎ올으)와 ‘爲臥乎拈’(ㅎ누은바)는 ‘ㅎ올으저’와 ‘ㅎ누은바’의 그리고 물보의 ‘爲乎事’(어오른)와 ‘無不冬’(어오로안)은 ‘어로른일’과 ‘어오로 안들’의 오기이고, ‘爲白臥乎以用良’(ㅎ샅누은들노빠)는 ‘爲白臥乎等以用良’에서 ‘等’이 누락된 것이다. 그 외에 ‘教事’(이산열), ‘其等徒’(저드 더), ‘教味白齊’(이샷알살저), ‘是去向入’(잇가앗드저), ‘的只乎事’(마가온일), ‘不冬’(앗들), ‘不得’(모지), ‘始叱’(비록), ‘專亦’(결허)와 ‘使內使’(바리온일)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문헌

- 김근수(1980), 물보 해제, 「물명고·물보」, 경문사.
김근수(1980), 재물보 해제, 「재물보」(한국학고사전총서14), 아세아문화사.
박성종(1996), 조선 초기 이두 자료와 그 국어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안병희(1983), 이두문헌 이문대사, 동방학지 38.
안병희(1986), 이두문헌 <이문>에 대하여, 배달말 11.
오창명(1995), 조선전기 이두의 국어사적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유창돈(1964),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가원(1960), 물보와 실학사상, 인문과학 5,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부록】 재물보·물보의 이두 목록

加于 더옥이(물보)	無亦 어로오견이여(물보)
更良 가시여(물보)	無乎事 어오론(물보)
件記 발기(물보)	茂火 더무러(물보)
拷音 다짐(물보)	物物白活 갓갓발팔(물보)
戈只 과글이(물보)	白等 숲든(물보)
教味白齊 이삿알살져(물보)	白是 살이(물보)
教事 이산열(물보)	別乎 벼롬(물보)
教是 이시(물보)	並囚 값슈(물보)
教是臥乎在亦 이시누운견이여 (물보)	並以 아오로(물보, 재물보)
教是在如中 이시전다현(물보)	並只 다모기(물보, 재물보)
教矣 이사더(물보)	卜定 지정(물보)
及良 밋쳐(물보)	捧上 밋자(물보)
其等徒 저드더(물보)	分叱不喻 썬아닌지(물보)
岐等如使內如乎 기로러바리다 온(물보)	不冬 앓들(물보)
岐如 가로여(물보)	不得 모지(물보)
段置 단두(물보)	使內白如乎(바라삶다온)(물보)
導良 드되여(물보)	使內使 바리온일(물보)
望良白去乎 바라삶겨온(물보)	숨음 말음(물보)
望白良尔 바라삶아곰(물보)	先可 아직(물보)
貌如使內良如教 좃다바리다이 산(물보)	是去是良尔 이거이아곰(물보)
無不冬 어오로안들(물보)	是去有等以 이거이온들노 (물보)
	是去向入 잇가앗드저(물보)
	是良爾 이아곰(물보)

是白良尔 이삼아금(물보)
 是白有亦 이삼이시니여(물보)
 是白乎味 이삼은맛(물보)
 是沙餘良 이샤나마(물보)
 是如 이다(물보)
 始叱 비록(물보)
 是置有亦 이두이시니여(물보)
 新反 샤로이(물보)
 良中沙 아회사(물보)
 役 진役(물보)
 役如 격기(물보)
 易亦 아나하(물보)
 右良 이무여(물보)
 尤于 더욱(물보)
 爲去等 히거든(물보)
 爲去乙 히거늘(물보)
 爲等亦 히든여(물보)
 爲良結 히야감(물보)
 爲良置 히야두(물보)
 爲白去乙 히삼거늘(물보)
 爲白去乎 히삼거은(물보)
 爲白遣 히삼고(물보)
 爲白內等 하삼너든(물보)
 爲白等 히살든(물보)
 爲白良尔(하삼아금(물보)
 爲白良結(히삼아저)(물보)
 爲白良沙 히삼아샤(물보)
 爲白良噓 히삼아지(물보)
 爲白沙餘 히삼샤나마(물보)

爲白如可 히삼다가(물보)
 爲白如乎 히삼다운(물보)
 爲白臥乎味 히삼누은맛(물보)
 爲白臥乎所 히삼누은바(물보)
 爲白臥乎以用良 히삼누은돌노
 배(물보)
 爲白乙所 히올바(물보)
 爲白在如中 히삼견다히(물보)
 爲白齊 히삼전/히삼절(물보)
 爲白置 히삼두(물보)
 爲白乎旃 히삼오며(물보)
 爲白乎事 히삼은일(물보)
 爲白乎噓 히삼은지(물보)
 爲白乎噓良置 히삼은지라두
 (물보)
 爲白乎矣 히삼오녀(물보)
 爲白乎在亦 히삼오건이여
 (물보)
 爲白乎第亦中 히삼은저여히
 (물보)
 爲是遣 히잇고(물보)
 爲臥乎 히누은(물보)
 爲有去乙 히잇거늘(물보)
 爲有在而亦 히잇견말이여
 (물보)
 爲隱所 한마(물보)
 爲隱噓 훈지(물보)
 爲只爲 히기암(물보)
 爲巴只 하도록(물보)

爲乎 ㅎ은(물보)	進比 낫드러(물보)
爲乎旆 ㅎ오며(물보)	秩秩以 지질노(물보)
爲乎所 ㅎ은바(물보)	尺文 자문(물보)
爲乎樣以 ㅎ은양으로(물보)	初如 초허(물보)
爲乎矣 ㅎ오디(물보)	最只 아지기(물보)
有如 이시니여(물보)	迫于 초초(물보)
唯只 오직(물보)	他矣 남의(물보)
乙良 을낭(물보)	退伊 물니(물보)
乙用良 을쓰와(물보)	便亦 사리여(물보)
矣徒等亦 의너등이여(물보)	向敎是事 향교시샤(물보)
矣身亦 의몸여(물보)	向事 아안일(물보)
矣身耳亦 의몸싸여(물보)	向入 앓드러(물보)
矣身向爲良 의몸향ㅎ여(물보)	絃如 시우여(물보)
擬只 시기(물보)	惠伊 저즈지(물보)
仍于 지즈로(물보)	況旆 ㅎ물며(물보)
作文 질문(물보)	
這這 갓갓(물보)	
適音 마침(물보)	
的只 마기(물보)	
的只臥乎事 마기누온일(물보)	
的只乎事 마가온일(물보)	
專亦 절혀(물보)	
詮次以 전차로(물보)	
節 지위(물보)	
除良 더리(물보 재물보)	
題音 제김(물보)	
除除良 더더리(물보)	
粗也 아야라(물보)	
進賜 나오리(물보)	